

만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고찰

An Analysis of the Comic Books Titled *Korea-My Home*

한 미 경 (Han, Mikyung)*

◁ 목 차 ▷

| | |
|-------------------|------------------|
| 1. 서론 | 3.2 1950년대의 만화가 |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3 6.25 전쟁의 심리전 |
| 1.2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 4. 우리 대한민국의 분석 |
| 2. 연구의 배경 | 4.1 서지적 분석 |
| 2.1 용어 | 4.2 내용 분석 |
| 2.2 만화의 시대적 구분 | 5. 결론 |
| 3. 1950년대의 만화 | <참고문헌> |
| 3.1 1950년대 만화의 종류 | |

< 초 록 >

이 연구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KOMACON) 소장의 유일본 만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서지 및 내용을 고찰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의 배경으로 용어와 국내 만화의 시대적 구분을 살피고, 1950년대 만화의 종류와 만화가 및 6.25 전쟁의 심리전을 고찰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전체적인 내용은 북한과 남한의 체제와 생활 비교 및 미국과 유엔의 체제 홍보적 성격이 강하다.
- 2) 내용의 시간적 범위는 해방 후 1945년부터 서울이 중공군에게 함락 이후 1951년 즈음까지 다루고 있다.
- 3) 표제의 경우 국문 외에 영문(Korea - My Home)이 함께 표기되어 있으며, 반공적 홍보용전단 성격으로 유엔본부 또는 미 8군 사령부나 한국 육군본부 또는 국방부 정훈국의 발행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내용 중 미국과 유엔의 역할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유엔본부 또는 미 8군 사령부의 발행 가능성이 보다 높다.
- 4) 발행년의 경우 표제지면의 'January 1952' 스탬프 도장과 전체 내용의 시간적 수록 범위 조사를 바탕으로 1952년으로 볼 수 있다.
- 5) 책입표시사항은 미상이나 유엔본부 또는 미 8군 사령부나 한국 유엔본부 또는 정훈국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만화가의 경우 국방부 정훈국 미술대에서 계몽포스터와 삐라 작업에 참여한 김성환과 당시 유엔군의 포로로 홍보전진 작업에 참여한 김용환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당시 심리전에 만화가들이 동원되어 홍보자료 제작에 참여하였으므로 제3의 만화가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다.
- 6) 1950년대에는 홍보용전단과 만화잡지 등이 6.25 전쟁 심리전의 홍보용 매체로 활용되었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단행본 홍보자료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제지면의 'UNIT No. 23' 기록을 통해 또 다른 홍보용 자료 또는 단행본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要語: 우리 대한민국, 홍보용전단, 삐라, 6.25 전쟁, 심리전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bib4u@kgu.ac.kr)

투고일: 2020년 5월 20일 최초심사일: 2020년 6월 2일 게재확정일: 2020년 6월 16일
서지학연구, 제82집, 173-195,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2.173>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review bibliography and contents regarding *Korea - My Home* which is possessed by KOMACON. As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the terms and periodic classification of domestic comic books were reviewed as well as the types, cartoonists, and psychological wars of comic books in 1950s. The results of review on *Korea - My Home* are as follows.

1) Overall contents are noticeably aiming at comparing the system of South Korea with that of North Korea with a view to serving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States' propaganda on their system advantage.

2) The time scope of the contents covers from 1945 when Korean was liberated from Japan to 1951 when Seoul was recaptured by Chinese Army.

3) The title of this book is written in English (as *Korea - My Home*) in addition to Korean. I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anti-Communist propaganda bill,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this comic book was published by either United Nations Headquarters or the US 8th Infantry Division or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or Information and Education Bureau of National Defence Ministry. It is to be noted that there is higher possibility that these were published by UN Headquarters of US Command or the US 8th Infantry Divis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role of the US and the UN is mentioned often in the contents.

4) The publication year is judged to be 1952, taking into account the stamped indications reading 'January 1952' on the page of the title and the investigations of time range coverage of the overall contents.

5) While the author of this book is anonymous, there is chance that it was produced by UN Headquarters, the US 8th Infantry Division Headquarters, UN Headquarters Korea, or Information and Education Bureau of National Defence Ministry. In the case of cartoonist, the author might have been either Kim Sung Hwan, who participated in the editing of enlightenment poster and propaganda bills or Kim Yong-hwan who participated in the publication of propaganda bills as the hostages of the United Nations Army during those days. However, there is no excluding the possibility that the other person is the author because cartoonists were mobilized to participate in the editing of propaganda as part of psychological war at that time.

6) In 1950s, such printed materials as propaganda flyers and comic book magazines were used as the media as part of psychological war strategy during Korea War. Especially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out that single separate books such as *Korea - My Home* were also made available. And based on the record of 'UNIT NO.23', it can be guessed that there might have been other type of materials or monographs published for propaganda purposes.

Key words: *Korea-My Home*, leaflet, handbill, Comic, Korea War, psychological war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만화의 사전적 정의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이야기 따위를 간결하고 익살스럽게 그림 그림·대화를 삽입하여 나타낸다’ 또는 ‘사물이나 현상의 특징을 과장하여 인생이나 사회를 풍자·비판하는 그림’이다.¹⁾ 이러한 특징으로 만화는 만평, 시사전달, 홍보수단 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만화는 한자 조어이다. 이는 1913년 발간의 아동잡지 「붉은 저고리」에서 순우리말인 ‘다음엇지’라는 용어가 등장 이후 1922년 9월 24일 「東明」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러나 실제 한국 만화의 탄생은 1909년 6월 2일 「大韓民報」 창간호 1면에 실린 이도영(1884-1933)의 만평인 삽화를 기준하고 있으며, 이에 이도영은 한국 최초의 만화가로 평가되고 있다.²⁾ 2020년 현재 한국만화는 탄생 111주년을 맞이하였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근래 들어 6.25 전쟁 관련 자료들의 발굴과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접하게 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장의 만화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 당시의 특수 상황에서 발간된 만화이자 6.25 전쟁 당시의 시대를 살필 수 있는 특별한 단행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50년대 만화로서 현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소장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제침략기의 군대만화엽서, 6.25 전쟁기 빼라의 만화적 특성, 만화잡지인 「만화학생」을 통해 살핀 1950년 아동만화잡지, 6.25전쟁과 심리전 등이 찾아진다.³⁾ 이와 같이 6.25 전쟁 당시의 심리전적 성격 또는 홍보자료 성격의 엽서, 만화잡지, 빼라 등에 대한 연구 외에 단행본 만화에 대한 연구는 찾아지지 않는다.

이에 이 연구는 1950년대 만화인 「우리 대한민국」의 분석을 위하여 1950년대 만화의 종류와 만화가 및 6.25 전쟁의 심리전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서지적 사항과 내용의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전체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1950년부터 1953년으로 하였으며, 문헌연구법과 메타스터디(meta-study) 연구법, 서지학적 연구방법으로 서지적 분석과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1)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
- 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를 말하다」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4), 170.
- 3) 이용수, 황익구, “일제침략기 군대만화엽서를 통해 본 군대의 홍보와 병영생활: 전쟁프로파간다의 전파와 확산,” 『일본문화연구』 67(2018. 7), 115-140. ; 이용수, 백정숙, “『만화학생』을 통해 1950년대 아동만화잡지를 돌아보다,” 『근대서지』 20(2019. 12), 350-364. ; 이윤구, “6.25전쟁과 심리전: 들리지 않던 총성, 종이폭탄! 빼라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1(2010), 130-148. ; 이재용, 윤기현, “한국전쟁기 빼라의 만화적 특성 분석: 미군과 한국군의 빼라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2019. 6), 217-242.

첫째, 만화의 용어와 시대적 구분 및 6.25 전쟁의 심리전은 문헌연구법으로 진행하였다. 1950년대 만화잡지와 신문 및 만화가에 대한 조사는 기존에 연구된 문헌들을 참조하여 메타스타디연구법으로 진행하였다.

둘째, 『우리 대한민국』의 책임표시사항과 발행사항 및 성격의 고찰을 위하여 1950년대 만화의 종류, 만화가 및 6.25 전쟁의 심리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950년대 만화의 종류는 홍보용전단, 만화잡지, 군대만화엽서, 신문의 만평과 연재만화 등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6.25 전쟁 즈음에 흥행하였던 홍보용전단과 만화잡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950년대 만화잡지와 신문은 연속간행물 이므로 1950년대에 간행되고 있던 것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950년대 만화가의 조사는 만화잡지와 신문의 창간년 기준으로 6.25 전쟁이 휴전되는 1953년까지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부 이후 발간의 군기관지를 포함하였다. 만화잡지 활동 만화가의 경우 필자와 회원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알려지지 않은 만화가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문에서의 활동 만화가의 경우 군기관지 등에 동원된 만화가 중심으로 정리하고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고찰은 서지적 분석과 내용적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서지적 분석은 표제 외에 책임표시사항과 발행사항 및 형태사항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책임표시사항은 미상으로 당시 활동 만화가들이 작고하였으므로 1950년대 만화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해야하는 제한점이 있다. 발행사항 또한 미상으로 발행처는 표제지면 상의 스탬프 도장과 내용상의 기술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였으며, 발행년은 표제지면상의 스탬프 도장과 내용의 시간적 범위 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한편,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유일본이므로 판본의 고찰은 포함하지 않았다. 내용 분석은 내용의 기술과 시간적 범위 및 내용의 구성을 고찰하였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성격은 6.25 전쟁의 심리전과 내용의 구성을 바탕으로 고찰하였다.

2. 연구의 배경

연구의 배경으로 ‘만화’ 용어와 한국 만화의 시대적 구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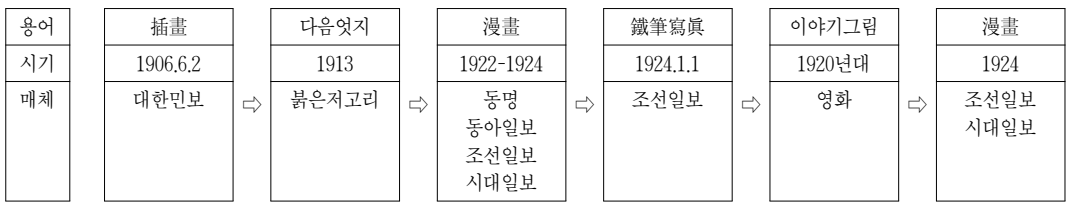
2.1 용어

만화를 영국과 미국 등의 영어권에서는 전반적으로 ‘카툰(cartoon)’이라고 부르며, 유럽에서는 ‘캐리커처(caricature)’라고 부른다. 또 여러 장면을 연결시킨 유머만화는 ‘코믹 스트립스(comic strips)’라고 부른다. 대체로 우리나라와 중국·일본 등 한자를 쓰는 나라에서는 희평(戲評), 희화(戲畵) 또는 풍자화라고 부르다가, 덜어 놓고 되는 대로 만연(漫然)히 그린다는 뜻에서 만화로 굳어져 표기되기 시작하였다.⁴⁾ 한편, 만화 중 심리전 전단을 일명 ‘빠라(bill, handbill)’라고 부르기도 하며, 심리

전 매체로 이용될 때에는 ‘leaflet’라 하여 심리적 전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⁵⁾

‘만화’는 한자조어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표기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대중 매체를 통한 공식적인 ‘만화’의 사용은 1922년 9월 24일자의 주간지 『東明』의 ‘賠償能不能의 漫畫戰’이라는 제목에서 시작되고, 정의 또한 『東明』 10면의 ‘文字以上으로 文字의 效用을 奏하고 言論以上으로 言論의 權能을 揮하는 것은 漫畫을시다’⁶⁾에서 찾아진다.

다만, 우리나라는 ‘만화’ 이전에 사용된 용어들이 찾아진다. 그 처음은 1909년 6월 2일 『대한신보』 창간호에 실린 풍자만화 중의 ‘삽화’라는 단어이다.⁷⁾ 또한 한자조어인 ‘만화’가 사용되기 이전에 아동잡지 『붉은 저고리』에서 ‘다음 칸 혹은 다음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순우리말인 ‘다음엇지’라는 용어도 등장하였다.⁸⁾ 이에 우리나라의 만화 관련 용어 사용의 변천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한국의 만화 관련 용어의 변천

이상의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의 만화 관련 용어는 ‘삽화’, ‘다음엇지’, ‘만화’, ‘鐵筆寫眞’, ‘이야기그림’, ‘만화’ 등의 순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일제 통치기를 거치면서 한자조어 ‘만화’가 대중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2.2 만화의 시대적 구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한국만화의 시대구분을 태동기(1909-1945), 발전기(1945-1969), 부흥기(1970-1999), 전환기(2000-현재)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 위원회는 신문만화의 서막(1900-1945), 독자만화의 태동기(1945-1950년대 말), 아동 만화잡지시대(1960년대), 여성잡지시대(1970년대), 만화 전문작가의 태동기(1980년대), 만화단체의 부흥과 만화의 진화(1990-현재)와 같이 여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⁹⁾ 그중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시대구분과 주요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

5) 이윤구(2010), 132.

6)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선사시대부터 1945년까지』 (서울: 프레스빌, 1996), 18.

7) 손상익(1996), 16.

8) 한국만화영상진흥원(2014), 171.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¹⁰⁾

<표 1> 한국 만화의 시대구분

| 구분 | 시기 | 일시와 년대 | 주요내용 | 비고 |
|-----|-----------|-------------------------|---|-----------------|
| 태동기 | 1909-1945 | 1909년 2월 24일 | 『대한민보』, 이도영의 만평 | '만화'의 처음 사용 |
| | | 1920년 4월 1일 | 『동아일보』, 김동성의 '그림이야기' | 한국 신문 최초의 4단 만화 |
| | | 1924년 | 『조선일보』, '멍텅구리 헛물켜기' | 한국 최초의 캐릭터 만화 |
| 발전기 | 1945-1969 | 1948년 9월 15일 | 『만화행진』 창간 | 만화 전문잡지의 등장 |
| | | 1949년 3월 13일 | 『만화뉴스』 창간 | |
| | | 1950년 | 『만화신문』 창간 | |
| | | 1955년 | 제일문고, 부엉이문고 | 단행본 브랜드의 탄생 |
| | | 1958년 | 클로버문고 | |
| 부흥기 | 1970-1999 | 1970년대 | 스포츠신문과 대중잡지의 등장, 성인만화의 성장, 어린이 교양잡지의 부흥 | |
| | | 1980년대 | 만화 전문잡지와 여성 만화가의 등장 | |
| | | 1990년대 | 본격적인 미디어믹스의 전개 | |
| 전환기 | 2000-현재 | 웹툰의 등장과 변화, 다양해지는 미디어믹스 | | |

이상의 표와 같이 한국의 만화는 1909년에 『대한민보』와 『동아일보』와 같은 신문을 통하여 태동되었다. 이후 일제강점기의 언론 및 출판계의 검열과 감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만화전문잡지와 단행본 시기를 거치면서 대중에게 정식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70년대부터 1990년대의 부흥기를 거쳐 2000년대 들어 현재 다양화된 미디어믹스와 웹툰 등의 시대에 놓여 있다. 특히 1950년대의 『만화행진』, 『만화뉴스』 등과 같은 만화 전문잡지의 등장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의하여 군기관지의 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하였다.

3. 1950년대의 만화

이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자사향과 내용 등의 고찰을 위하여 1950년대의 만화의 종류, 만화가 및 6.25 전쟁의 심리전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3.1 1950년대 만화의 종류

1950년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구분에 의하면 한국만화의 발전기인 1949-1969년에 해당된

9) 한국만화100주년 시사만화위원회, 『한국시사만화100년: 풍자와 해학, 희망의 시사만화』 (서울: 알다, 2009), 책 뒷날개.
 10) 김성훈, “한국만화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를 말한다』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4), 170-199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다. 만화의 종류는 기존의 신문 외에 신문잡지와 단행본브랜드가 등장하는 시기이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언론과 출판계는 다양한 신문과 잡지를 창간하였으며, 만화전문잡지도 출현하였다. 특히 6.25 전쟁 당시에는 홍보용전단인 뼈라와 만화잡지류가 활성화되었다.

만화잡지의 시기는 태동기(1945-1959), 준비기(1960-1979), 만화잡지 세대의 개막(1980-1989), 전성기(1990-2004)로 구분되고 있다. 그중 태동기의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만화잡지와 군기관지 2종을 포함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¹¹⁾

<표 2> 1946-1953년의 만화잡지

| 표제 | 발행처/발행인 | 창간일/간기 | 판형 | 비고 |
|---------|--------------|------------|------------|--------------------------|
| 소년세계 | 고려서적주식회사/노태준 | 1950 | | - 아동잡지 |
| 希望 | 청려사/박성환 | 1951 | | - 성인대중잡지 - 폐간 |
| 漫畫漫文展覽會 | 남향문화사/김득룡 | 1951 | | - 시사만화잡지 - 폐간 |
| 만화천국 | 남향문화사/김득룡 | 1952 | | - 시사만화잡지 |
| 새벗 | 새벗/김춘배 | 1952/월간 | 15x21 cm | - 어린이 잡지 - 기독교 계열 출판사 |
| 學園 | 대양출판사/김익달 | 1952.11/월간 | 15.5x22 cm | - 청소년 교양지 - 폐간 |
| 漫畫週報 | 만화주보사/김용환 | 1953/주간 | 19x26 cm | - 성인만화 - 폐간 |
| 육군화보 | 육군본부 | 1953 | | - 군기관지 - 폐간 |
| 實話 | 신태양사/황준성 | 1953.12/월간 | 14.5x19 cm | - 대중잡지 - 1965.5 폐간 |
| 육군문고 | 육군본부 | 1958/격월간 | 13.5x19 cm | - 군기관지 |

이상의 표와 같이 해방 후 6.25 전쟁 당시까지 많은 만화 잡지들이 창간되었다. 그중 「소학생」, 「소년세계」, 「새벗」, 「소년소녀만세」, 「만화세계」, 「만화학생」은 어린이 만화잡지이다. 「만화세계」는 최초의 어린이 만화잡지이며, 「학원」은 청소년 교양지이다. 「육군화보」와 「육군문고」의 경우 육군본부 발행의 군기관지이다.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의 「만화승리」, 「사병만화」와 같은 군기관지가 있으며, 이러한 군기관지는 만화를 선전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반공계몽지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50년대는 만화의 발전기로서 당시 이상의 만화잡지의 번창으로 만화계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6.25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반공계몽지 등의 만화잡지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상과 같은 만화잡지의 발간 기간은 길지 않았으며, 1960년대 대본소의 등장과 확장의 영향으로 대부분 폐간되었다.

11) 이두호, 「한국만화가이드북: 만화잡지편」 (부천: 부천만화정보센터, 2004), 10-23을 정리 편집한 것이다.

3.2 1950년대의 만화가

1950년대 만화가의 조사를 위하여 1953년까지 창간된 만화잡지에서 활동한 만화가와 1953년까지 발행된 신문에 활동한 만화가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¹²⁾

<표 3> 1950년대의 만화가

| | 표제 | 창간일 | 만화가 | 비고 |
|------|----------------------|--|--|---------|
| 잡지 | 소학생 | 1946.2 | 김의환, 정현웅, 김규택, 이영춘, 고상영, 김기창 등 | 구 주간소학생 |
| | 만화행진 | 1948.9.15 | 김규택, 김의환, 신동현 , 최상권, 임동은, 채남인, 이영춘, 이병주, 김용필, 오주환 등 | |
| | 新太陽 | 1949.3 | 김용환 , 김성환 , 신동현 , 김기을, 이상호, 안의섭, 이병주 등 | |
| | 만화뉴스 | 1949.3.13 | 김용환 | |
| | 소년세계 | 1950 | 한기철, 신동현 , 이병주, 김성환 등 | |
| | 希望 | 1951 | 김성환 , 안의섭, 정한기 등 | |
| | 漫畫漫文展覽會 | 1951 | 김성환 | |
| | 만화천국 | 1952 | 김성환 | |
| | 새벗 | 1952 | 김용환 , 김성환 , 박기정, 신동현 , 이재화, 정운경, 정찬영 등 | |
| | 學園 | 1952.11 | 김용환 , 김성환 , 신동현 , 이병주, 김영주, 이승만, 김태형, 백인수, 한성철, 정운경, 안의섭, 노석규, 김경언, 부석인, 이홍우, 이정문 등 | |
| | 漫畫週報 | 1953 | 김용환 , 김성환 , 신동현 , 심홍택, 강창호 등 | |
| | 육군화보 | 1953 | 김성환 , 조영재, 이재화 등 | |
| | 實話 | 1953.12 | 김경언, 안의섭, 정운경, 신동현 , 김봉승, 임창, 정한기, 이상호 , 최영섭, 김창덕 | |
| 육군문고 | 1958 | 이재화, 김경언, 김성환 , 한성철, 이상호, 김기을, 정운경, 신동우, 이병주, 임창, 안병호, 정한기 등 | | |
| 신문 | 서울신문 | 1945.11.22- | 정현웅, 임동은, 김용환 , 김기을, 정운경, 정한기, 한성철, 신동현 , 박기정, 임창 등 | |
| | 조선일보 | 1945.11.23- 복간 | 김규택, 신동현 , 김경언, 정운경, 김용환 , 김성환 , 한성철, 박기정, 이재화, 안의섭, 노석규 등 | |
| | 동아일보 | 1945.12.1- 복간 | 김용환 , 김성환 , 정운경, 박기정, 안의섭, 김경언, 백인수, 이홍우 등 | |
| | 경향신문 | 1946.10.6- | 김의환, 김용환 , 김성환 , 신동현 , 김경언, 안의섭, 백인수, 박기정 등 | |
| | 한국일보 | 1954.6.9- | 김규택, 신동현 , 안의섭 등 | |
| | 연합신문 | 1949.1.22-1960.7.10. | 김성환 , 신동현 , 이병주, 정한기, 김경언 등 | |
| | 평화일보 | 1948.2.8 | 김의환 등 | |
| | 평화신문 | 1948.10.18.-1961.1.31. | 김용환 , 이재화, 정운경, 한성철, 임창, 정한기 등 | 구 평화일보 |
| 중앙일보 | 1952.6.5.-1956.12.31 | 박기정 등 | 구 북한의 중앙일보 | |

12) 이두호(2004), 10-23과 한국만화100주년 시사만화위원회(2009), 269-273을 정리 및 편집한 것이다. 만화잡지의 만화가의 경우 만화잡지들이 대부분 1953년 이전에 창간되고 몇 년 안에 폐간되었으므로 당시 활동한 모든 만화가를 포함하였다. 신문의 경우 만화가의 활동시기 등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만화잡지에 활동한 만화가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적 만화가를 진하게 처리하였다.

| | 표제 | 창간일 | 만화가 | 비고 |
|--|-----------------|------------------------|--|-----------------------------|
| | 세계일보 | 1957.1-1960.7.8 | 박기정, 백인수, 정한기, 김용환 , 신동헌 , 안의섭, 신동우, 부석언 등 | 안의섭: 필명 安丁石 |
| | 부산일보 | 1949.6.10- | 신동헌 , 안의섭, 부석언 등 | |
| | 충청일보 | 1946.3.1- | 이흥우 등 | 이흥우: 필명 신기원 구 충청일보, 충북신문 |
| | 대전일보 | 1950.1.3- | 안의섭 등 | 구 대전일보, 중부일보, 충남일보 |
| | 매일신문 | 1946.3.1- | 안의섭, 정운경 등 | 김일소: 본명 김한성 구 남선경제신문 |
| | 경남신문 | 1946.3.1- | 정운경 등 | 구 남선신문, 남조선신문, 마산일보, 경남매일신문 |
| | 제민일보 | 1945.10.1 | 양병운, 강용택 | 구 제민일보, 제주신문 |
| | 영남일보 | 1945.10.11-1980.11.25 | 안의섭 | |
| | 국제신문 | 1945.10.11.-1980.11.25 | 안의섭, 김성환 등 | 구 일간산업신문, 국제신보 |
| | 전북일보 | 1952.10-1980.11.24 | 한성철, 안의섭, 정운경, 부석언 등 | |
| | 코리아리퍼블릭 | 1953.8.15.-1965.8.14 | 김용환 등 | The Korean Republic |
| | 코리아타임즈 | 1950.11.1 | 김규택, 신동헌 등 | |
| | The Seoul Times | 1945.9.6-1949.2.2 | 김용환 등 | |

이상의 표와 같이 1953년까지 창간된 만화잡지 13종과 1950년대까지 창간된 신문 24종을 대상으로 당시 활동한 만화가에 대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53년까지 창간된 만화잡지와 1950년대까지의 신문에 활동한 만画가는 총 43명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신문잡지 활동 만화가 총 43명, 신문 활동한 만화가 24명으로 만화잡지에서의 만화가의 활동이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각 만화잡지와 신문의 주요 활동 만화가와 관련하여 김성환이 10곳, 신동헌이 7곳, 김용환과 이병주가 각각 5곳으로 총 43명의 만화가 중 4명이 가장 많은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문의 경우 안의섭 11곳, 김용환과 신동헌은 각 8곳, 정운경은 7곳, 박기정은 6곳, 김성환은 5곳에서 활동한 만화가였다. 총 24명중 6명이 가장 많은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중 김성환, 신동헌, 김용환이 공통적으로 만화잡지와 신문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만화잡지와 신문을 종합적으로 보면 김성환이 15곳, 신동헌이 15곳, 김용환이 13곳으로 김성환이 가장 활발한 활동 만화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육군의 군기관지인 만화잡지인 「육군화보」와 「육군만화문고」의 홍보만화에 공통적으로 참여한 만화가는 김성환이다.

넷째, 그 외에 「자유의 벚」, 「만화승리」, 「사병만화」, 「육군화보」 등과 같은 군기관지 홍보만화에 참여한 만화가로 알려진 김용환, 김성환, 김의환, 김규택, 이상호, 고상영, 정한기 중 전술의 김용환과 김성환을 제외한 만화가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³⁾ 즉, 김규택의 경우 신문 2곳과 만화잡지 3곳의 총 5곳에 참여하여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김의환의 경우 신문 2곳과 만화잡지 2곳의 총 4곳에 참여하였다. 정한기의 경우 신문 3곳과 만화잡지 1곳의 총 3곳에 참여하였으며,

13) 이두호(2004), 8-9.

고상영의 경우 신문 1곳에 참여하였다. 한편, 이상호의 경우 조사대상의 신문과 만화잡지에서의 활동은 찾아지지 않았다.

이상의 1950년대 만화잡지의 분석에서 기술하였듯이 군기관지의 경우 만화를 홍보 및 선전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반공계몽지의 역할을 했으며, 많은 화가와 만화가들이 홍보용진단과 만화잡지 중 군기관지에 전시만화를 그리는데 동원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만화가는 김성환, 김용환, 신동현이며, 이들은 군기관지 홍보만화 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다.

3.3 6.25 전쟁의 심리전

「우리 대한민국」의 내용 성격과 심리전 단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시대적 심리전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¹⁴⁾

<표 4> 6.25 전쟁의 단계별 심리전

| 단계 | 시기 | 단계내용 | 대상 | 심리전 전략 | 우리 대한민국 |
|-----|-------------------|----------------------|----|---|---|
| 1단계 | 1950.6-9.14 | 무력 남침단계 | 대남 | 남침 정당화·합리화, 북한군들의 전투사기 부추기기, 군대 지원 위한 정치선전·선동, 한국내 노동자 농민들의 폭동과 파괴 및 교란 부추기기, 독전을 강요하는 김일성의 특별지령 하달 | - 대남심리전의 내용이 소련공산당의 주장으로 실림 - 대북심리전의 내용이 반영됨 |
| | | | 대북 | 유엔군에 의한 전단 및 라디오방송, 공산괴뢰집단의 불법남침 사실, 미군의 투입으로 적 격퇴 예정 | |
| 2단계 | 1950.9.15-1950.11 | 패주 시기 | 대남 | 북한군의 후퇴 보장 선전, 연합군 저항 남로당에게 남한 내에서 게릴라 투쟁을 강화하는 선전·선동 | - 포함 안 됨 |
| | | | 대북 | 투항 유도, 이군의 전의고취, 북한점령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 |
| 3단계 | 1950.12-1951.6 | 38선 중심의 전선교착과 대치상태시기 | 대남 | 일부 산악지대 중심 활동의 게릴라부대와 남로당 조직 및 당원들의 저항투쟁을 고무충동, 연합군과 이간 및 갈등조장 등 모략선전 | - 포함 안 됨 |
| | | | 대북 | 투항 권고, 북한군의 엄전사상과 향수심 부각 | |
| 4단계 | 1951.6-1953.7 | 휴전회담시기 | 대남 | 유엔군에게 엄전사상과 향수심 자극, 휴전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게 전가 | - 포함 안 됨 |
| | | | 대북 | 향수심 자극, 투항권유, 휴전지연에 따른 불만심리조성, 전쟁지도부에 갈등 증 폭, 포로 설득 | |

이상과 같이 6.25 전쟁 시기별 심리전 내용을 보면 당시 전장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 특히 대북 심리전의 홍보자료였을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 시기별 심리전 중 제1단계(1950.6-9.14)의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남한의 경우 기습남침으로 후퇴하는 상황이었고 심리전 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유엔군에 의한 전단 및 라디오방송 외에는 별다른 심리전을 실시하지 못했다(4.2.2 참고).

14) 이윤구(2010), 142-143을 참고하여 정리 편집하였다.

4. 우리 대한민국의 분석

이상에서 조사된 1950년 만화의 종류, 만화가와 심리전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서지적 부분과 내용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서지적 부분의 경우 표제 외에 책임표시사항과 발행사항 및 형태사항 위주로 살펴보고, 내용의 경우 내용의 기술과 시간적 범위 및 내용 구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4.1 서지적 분석

「우리 대한민국」의 앞표지는 탈락 상태이다. 표제지면에 큰글자의 ‘우리 대한민국’ 아래에 작은 글자로 ‘KOREA - MY HOME’, ‘UNIT NO. 23’, ‘JANUARY 1952’의 네 가지 정보가 주어졌다. 이는 인쇄되어져 있는 본문과 달리 스탬프 도장과 같은 것으로 찍혀 있다. 그중 「우리 대한민국」과 ‘KOREA - MY HOME’은 한글 표제와 영문 표제로 추정 가능하다. 한편 ‘UNIT NO.23’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23번째 홍보자료 또는 홍보책자로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자세하지는 않다. 이에 서지적 사항으로 책임표시사항과 발행사항 및 형태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1.1 책임표시사항

「우리 대한민국」의 책임표시사항은 미상이다. 홍보용전단 성격의 만화이기에 내용은 유엔본부 또는 미 8군 사령부나 한국 육군본부 또는 국방부 정훈국 등이 작업하고, 그림 등은 당시 활동한 만화가에 의하여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⁵⁾ 우선 대표적인 인물로 전술의 3.2에서 조사된 김성환, 김용환 등이 참여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만화가들은 이미 작고하셨으며, 현재 확인 가능한 작품들은 만평 등 캐리커처화된 인물 중심의 만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이들 만화가들의 창작 작품이 아니며, 기관 등의 홍보용전단의 성격이 강하므로 만화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고 김성환(1932.10.8.-2019.9.8.)은 전술의 만화잡지와 신문을 통한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만화가였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김성환은 전시에 김병기 화백의 추천으로 국방부 정훈국 미술대에 근무하면서 계몽포스터와 빠라, 주간만화잡지 「만화승리」, 「육군화보」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미술대 내에는 화단의 중진들로 구성된 중군화가단이 결성되어 있었는데 김성환은 이들과 한솥밥을 먹으며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¹⁶⁾ 실제 1951년 가을에는 국방부 정훈국 미술대 소속 기자로 중부전

15) 미 국무부는 극동사령부 심리전부(PWS)에 일간과 주간으로 정책지침을 하달하였으며, 극동사령부는 이 정책지침에 따라 빠라를 제작했다. 미 8군 사령부와 한국 국방부 정훈국에서 실시한 심리전의 모든 내용도 극동사령부의 승인을 받고 제작되었다. 한국 육군도 8군 사령부 G-3아래 편제되어 심리전에 함께 참여를 하였고, 국방부 정훈국도 8군 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북한군이 점령했던 수복지역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빠라, 포스터, 표어 등을 발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재웅, 윤기현(2019), 224-225.

선 6사단을 방문하여 긴장감이 감도는 최전방 고지전의 현장과 병사들의 모습을 스케치로 남겼으며, 작고 전에 6.25 스케치전이 개최되기도 하였다.¹⁷⁾

한편, 당시 민화 및 풍속만화가였던 고 김용환(1912-1998.12.1.)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김용환은 6.25 전쟁 당시 서울에 있다 인민군에게 잡혀 조선미술동맹의 일원으로 남로당선전부에 배속되어 공산주의 선전물을 만들어야 했고, 다시 육군본부 작전국의 심리전과에 배속되어 대북 선전물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이러한 정황으로 당시 민속 및 풍속만화가로서 한국 현대만화선구자였던 김용환이 유엔군 포로로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홍보전단 작업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국방부 정훈국 미술대에서 계몽포스터와 빼라 작업에 참여한 김성환과 당시 유엔군의 포로로 홍보선전 작업에 참여한 김용환을 참여 만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 만화가들은 1세대 만화가로서 당시 가장 활발히 활동하였던 대표적 만화가들이었으나 현재 작고하셔서 확인이 어려운 아쉬움이 있다. 한편, 이들 외에 『우리 대한민국』이 반공계몽 성격의 홍보전단으로 책임표시사항 관련 저자나 만화가 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기에 이들 외에 제3의 만화가가 참여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4.1.2 발행사항

표제지면에 찍혀 있는 사항으로 발행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발행처의 경우 한글 표제 외에 영문 표제가 있고 전체적인 내용이 반공계몽적 홍보용전단 성격이 강한 것으로 미루어 일반 개인이나 민간보다는 전술한 군기관인 유엔본부 또는 미 8군 사령부나 한국 유엔본부 또는 정훈국에서 제작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발행년의 경우 ‘January 1952’로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 부분이 도서 발행 당시에 찍힌 것인지 이후 찍힌 것인지에 대한 상세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표제지면 뒷면에 장서기(<그림 4> 참조)로 보이는 ‘江原道 蔚珍郡’을 통해 울진군은 강원도에서 경상북도로 편입된 1963년을 발행년의 상한선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¹⁹⁾

16) ‘만화가 김성환: 한국 현대만화의 출발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7790&cid=59116&categoryId=59116>>. 한국의 국방부 정훈국은 국장 아래 차장이 있고 선전과 안에 미술대, 선전대, 섭외대, 군악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미술대는 미술대학교 출신의 젊은 화가와 만화가들이 문관과 군속 신분으로 근무하였다. 이재웅, 윤기현(2019), 226.

17) ‘만화와 추억’, <<https://cafe.naver.com/oldcomic/1758>>.

18) “‘코주부’ 만든 김해 출신 현대만화 거장 김용환 계승작업 활발.” 2018.10.18.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035>>. 이재웅, 윤기현(2019), 226.

19) 울진군은 1896년에 강원도 울진군이 되었고, 1914년 평해군이 울진군에 통합되었다. 1963년 강원도에서 경상북도로 편입되고, 온정면 본신리는 영양군 수비면에 편입되었다. 『두산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82402&cid=40942&categoryId=37713>>.

즉 표제지면의 '1952년' 기록과 장서기를 통해 얻어낸 '1963년'으로 이 도서의 발행년은 1952년 이전 또는 1952년 및 늦어도 1963년 이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제지면의 기록이 사후에 찍힌 경우라면 발행년이 1952년 이전일 가능성이 있고, 사후에 임의적으로 찍힌 경우라면 늦어도 1963년 이전에 발행되었을 것이다. 다만 내용의 시간적 범위 분석에 의하면 1952년 발행 가능성이 가장 크다(4.2.2 참조).

4.1.3 형태사항

6.25 전쟁시의 대표적 홍보전단인 빼라는 심리전에 있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특히 6.25 전쟁시 유엔군과 국군, 인민군은 심리전의 주 수단으로서 28억 장 이상의 빼를 살포하였으며, 이는 전략적·전술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²⁰⁾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도 심리전의 하나의 수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큰 특징은 낱장의 빼라가 아닌 단편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책자형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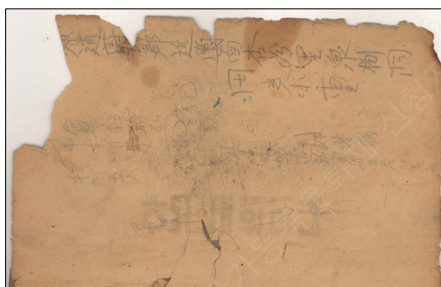
표지의 경우 다소 붉은 색깔의 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포배하고 스테이플 작업이 되어 있다. <그림 2>와 같이 앞표지는 탈락상태이고, <그림 3>과 같이 현재 뒤표지와 서배부분만이 남겨져 있다. 실제 몸통은 <그림 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내철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많이 읽히면서 내철된 부분이 갈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표제지면



<그림 3> 뒤표지



<그림 4> 표제지면 뒷면



<그림 5> 내철

20) 이윤구(2010), 130. 주1).

한편, 책의 크기는 14.5 × 20.6 cm로 전술의 1950년대 만화잡지의 크기와 비슷하여 당시 책자의 크기로 볼 수 있다. 본문은 전체 32장, 145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컷별로 순서를 원번호로 매겨 놓았다. 책의 전개는 좌에서 우로 전개되고 있으나 본문의 전개는 현재의 일반적인 세로 전개가 아닌 가로 전개이다. 한 면에 3-4장 컷으로 구성되어 있고, 컷의 전개 또한 좌에서 우로 전개되거나 한 면을 좌우로 나누어 좌상하에 이은 우상하로 전개되어 있다.

4.2 내용 분석

내용의 분석은 내용의 기술, 시간적 범위와 내용의 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2.1 내용의 기술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의 생활을 배경으로 하되 심리전 전략의 홍보용전단 목적으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의 전체적인 기술은 기본적으로 주인공의 자기 증언적 서술방식과 사실적인 그림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주인공의 독백적 설명과 대화의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계절의 변화 등은 생활상과 등장인물의 의상 등으로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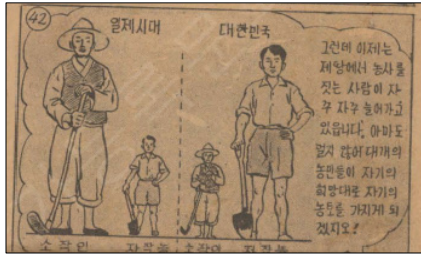
둘째,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대한 설명은 자막과 배경상의 특정한 그림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특히 소련 공산당 등장에는 스틸린의 사진(12번 컷)을 배경으로 그렸고, 상황 변화에 따른 배경으로 태극기(131번 컷), 연합군기(145번 컷) 등으로 국기가 제시되어 있다.

셋째, 정확한 정보 전달과 비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간략한 그림화인 인포그래픽적 도식과 설명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남한의 민주주의 설명을 위하여 조선의 일본 치하의 자기 토지 농민의 비율 비교(41번 컷, <그림 6> 참조), 일본 치하와 한국의 소작농과 자작농 비교(42번 컷, <그림 7> 참조) 등이 있다.

넷째, 대화는 현대의 말풍선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생각의 경우 구름모양으로 표시하고 있다. 상황에 대한 기술은 상단에 사각형 박스를 별도로 배치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만화적인 요소의 특징이 살아있으며 정보전달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다섯째, 6.25 전쟁 당시의 용어와 표현을 살필 수 있다. <표 5>와 같이 당시의 남한과 북한, 미국과 소련 등에 대한 국가명 기술의 경우 다양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구어체로 보이는 다양한 표현이 찾아진다. 그 외에 호소문의 경우 대화에서는 ‘호서문’이라 하고 그림 중의 현수막의 경우 ‘호소문’이라 표현하여 오타 또는 구어체로 인한 차이가 보였다. 외래어로서 ‘탱크’, ‘스토크호름’, ‘튜력’도 찾아졌다.

이상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 내용의 기술은 만화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홍보전단으로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방식들을 살필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시대적 복잡함과 구어적 표현 방식과 특징적 기술 등도 살필 수 있다.



<그림 6>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소작인과 자작농 비교



<그림 7> 미국이 한국에서 한 일

<표 5> 용어와 표현

| 남한과 북한 | 미국과 소련 | 구어체 표현 | 비고 |
|--|---|---|--|
| 남조선(96, 104)*, 남한(40, 41), 대한민국(42), 이남(106), 한국(39) | 미국(39), 미제국주의자(96, 104) | 기쁘개(11, 131), 너이(16, 134), 둘러머(98), 모라(104), 믿업죽해(132), 안네(132), 아모리(125), 안테(134), 조곰식(40), 향여나(100) 등 | - 다른 단어 호소문(101)과 호서문(101) - 한자표기의 오타 현명대(118) - 외래어의 표기 튜력(108) |
| 북조선(15, 64, 104), 북한(86) | 소련(2, 8, 10, 11, 12, 14, 30, 38, 84, 99, 100), 쏘련(3, 6) | | |

* 해당 부분 등장 컷

4.2.2 내용의 시간적 범위

「우리 대한민국」 내용의 시간적 범위를 살피기 위하여 6.25 전쟁의 전개와 「우리 대한민국」 내용의 전개를 비교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내용의 시간적 범위

| 시간 | 주요사건 | 세부전개 | 우리 대한민국의 내용 |
|-----------|------------------------|---|-------------|
| 1945.8.15 | 일본 항복 | | 해방소식으로 시작 |
| 1945.9.2 | 미·소 양군의 군사분계선 38선 책정 | 38선을 경계로 남북한은 미·소 양군에 의하여 분할, 점령됨 | 내용 다름 |
| 1945.12 | 미·영·소 3국 외상, 모스크바에서 회동 | 한반도 5년 간 신탁통치 실시 합의 | |
| | 한국민의 반탁운동 | | 내용 다름 |
| 1947 | 유엔총회 | 유엔 임시한국위원단 구성 위원단의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 실시 결의 | 선거 내용 다름 |

| 시간 | 주요사건 | 세부전개 | 우리 대한민국의 내용 |
|-----------|-----------------------|--|-----------------------|
| 1948 | | 소련군사령관의 북한 법령 | 소련의 북한 점령 상황을 배경으로 그림 |
| | 유엔소총회 | 선거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 결의 | 총선거 결의 내용 다름 |
| 1948.8 | | 남한만의 선거 거행 | 남한 선거 내용 다름 |
| 1948.8 | 대한민국 정부 수립 | | 정부수립 내용 다름 |
| 1948.9 |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 | 북한, 양군의 철수를 요구 | |
| 1948.10 | | 소련, 10월부터 철병 개시 | 소련의 철병 다름 |
| 1948.12 | 제3차 유엔총회 | 한국을 총선거가 실시된 합법정부로 승인 | 유엔에 의한 한국의 합법정부 승인 다름 |
| 1949.6 | | 미국, 군사고문단 외에 남한에서 철병 완료 | 미국 철병 언급 |
| 1949.10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 | 중국 중공군의 입국 그림 |
| 1950.6 25 | 6.25 전쟁 발발 | | |
| 1950.6.27 | | 미국 대통령 트루만(Truman, H. S.), 미국 해군·공군의 한국군 지원 명령 | |
| 1950.7 | | - 국제 연합,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 - 미국을 중심으로 16개국이 참여한 국제 연합군 파견 | 연합군기의 등장과 피난 |
| 1950.9.15 | 인천 상륙 작전 | - 국군과 국제 연합군, 평양 비롯한 북한 지역 대부분 장악 | 연합군기의 등장 |
| | | - 북한군, 중공군 후퇴 - 북한 주민들은 북한공산주의 확정을 피하고자 남한으로 피난 | |
| 1951.14 | 1.4후퇴 | | 피난 |

이상의 표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내용 전개는 1945년 8월 해방 이후 남자의 의복과 겨울 모자를 쓰고 피난하는 모습이 그려진 것으로 보아 1951년 1.4후퇴 때까지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 내용의 시간적 범위 조사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전술의 6.25 전쟁의 심리전 중 1단계의 무력남침단계에 해당한다. 즉, 대남의 심리전 내용과 유엔군에 의한 라디오방송, 공산괴뢰집단의 불법남침 사실, 미군의 투입으로 적 격퇴 예정 등과 같은 대북 심리전의 내용이 다루어져 있다. 특히 6.25 전쟁의 심리전 1단계가 이미 지난 후에 사후적으로 작업하여 1단계 당시 심리전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던 공산당의 악행과 민주주의의 자유, 미국과 유엔 및 연합군의 중요 역할의 홍보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2.3 내용의 구성

1945년 8월 해방 직후, 북한 청산골의 소작농 김춘식을 주인공으로 학교 교장 이재학, 소련 공산주의를 학습한 공산당 앞잡이 권한모와 부모와 함께 남한으로 넘어가 남한 사정에 대하여 잘 아는 정두남이 주요 등장인물이다. 기본적으로 해방 이후 신탁통치를 받게 된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부록] 참고). 전체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다음과 <표 7>과 같이 정리된다.

<표 7> 내용의 구성

| | | |
|-------------|-----------------|--|
| 대구분 | 주요 사건 | 북한주민의 생각과 생활 |
| 해방 | 해방소식 | 토지소유 희망 |
| | ↓ | |
| 소련 공산당의 등장 | 소련의 식량과 가축 징발 | 소련 군대를 해방자로 여김 |
| | 군대훈련명령과 신체검사 | 군대 징발의 어려움 부녀자 문제 |
| | ↓ | |
| 공산당 앞잡이 | 권한모의 등장 | 앞잡이의 악행과 권력 남용 딸 거취 문제 발생 |
| | ↓ | |
| 남한 소식 | 정두남의 남한과 미국 홍보 | 김춘식의 두려움 |
| 소련 공산당의 장악 | 인민위원회의 토지분배권 | 김춘식의 동인민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북한주민의 생활상의 어려움 |
| | 토지분배령과 토지분배지령서 | 토지 분배의 불합리성 |
| | 소련 공산당의 횡포 | 동인민위원회 위원장직 파면과 토지 박탈 및 농사꾼과 나무꾼의 어려움 |
| | ↓ | |
| 상황의 변화 | 스톡크홀름 평화 지원 호소문 | 평화 희망 |
| | 북조선공격 통보 | |
| | 이교장의 피살 | 지식인 피살과 정보의 차단 |
| | ↓ | |
| 중공공산당의 등장 | 소련 공산당 도망 | 권한모의 종말 |
| | 연합군 등장 | 가족생사의 확인 |
| | ↓ | |
| 6.25 전쟁의 발발 | 연합군 참전 | 김춘식 면장 당선 및 혼례준비 |
| 유엔군의 원조 | 유엔군 | 유엔군의 주민돌봄 예정 |
| | ↓ | |
| 피난 | 남한으로의 피난 | 희망의 땅으로 |

이상과 같이 크게 주요 사건과 그에 따른 북한 주민의 생각과 생활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의 구성의 경우 1945년 해방이후 소련 공산당의 등장과 퇴장 및 중공 공산당의 등장 및 1950년 6.25 전쟁 발발과 연합군의 참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건의 전개에 따른 북한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전개하고 있는데, 등장 인물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인공 김춘식의 평범한 소작 농민으로서의 삶을 통한 일제 강점기와의 비교와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 부인과 3남 1녀와의 당시 생활상과 동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제 꼭두각시 역할 수행, 토지분배명부와 분배의 속임, 체제에 대한 두려움, 아들의 강제 징병, 미혼 딸의 거취의 어려움과 혼사문제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학교 교장 이계학을 통한 지식인의 의식과 정보 습득의 과정 등을 알리고 있다. 당시 지식인으로서 서울방송과 유엔방송 등의 라디오 등을 통한 주요 사건과 정보를 알려주거나 시대적 판단

등의 조언을 해주고 있다. 결국 소작농과 같은 북한 주민의 교육 및 지도의 강제 중지와 공산당의 실상 노출 방지 및 남한과 유엔의 정보 차단이 한 방안으로 피살에 처하게 된다.

셋째, 소련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권한모의 악행을 통한 권력자로서 북한주민의 식량 강탈과 강압적 통제, 농사꾼과 나무꾼의 양식 등 강탈, 김춘식 딸을 이용한 비리 협조 겁박 등 공산주의 사람들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

넷째, 동리 주민이었다가 부모님과 남한으로 간 정두남을 통한 남한에서의 미국의 박애적 역할, 남한의 체제와 국가운영 및 자유로운 선거, 민주주의의 자유, 유엔의 활동 등 홍보하고 있다. 당시의 구체적인 사건과 활동을 알려주며 북한과의 체제 비교 및 체제 홍보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등장 인물간의 대화와 생각을 통하여 주요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토지분배지령서’ 조사와 분배에 따른 부당한 처리에 대한 북한 주민의 죄절감과 두려움 및 ‘스톡홀름 평화 지원 호소문’ 서명과 이에 따른 평화 갈망 등과 같은 반공계몽적 배경도 다루고 있다.

종합적으로 주요 내용은 소련공산당의 북한 점령, 공산당의 실체와 북한 주민의 생활상의 어려움과 두려움, 남한 체제에 대한 홍보, 6.25 전쟁 발발과 기습적 남침 고지, 유엔군 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6.25 심리전 1단계 성격의 심리전용 홍보전단으로 해당 시기에 대비하지 못한 당시 전황을 만화 체제를 이용하여 스토리텔링식 전개방식으로 기술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5. 결 론

만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고찰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북한의 생활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주요 내용은 북한과 남한과의 체제 비교 및 남한에서의 미국과 유엔의 체제 홍보와 반공계몽적이며 심리전 성격의 홍보전단이다. 이러한 홍보전단은 일반적인으로 낯장으로 존재하는데, 이는 책자형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둘째, 내용의 시간적 범위는 해방후 1945년부터 서울이 중공군에게 함락되던 1951년 14후퇴 즈음까지 다루고 있다.

셋째, 표제의 경우 국문 외에 영문표기가 함께 있는 것으로 유엔본부 또는 미 8군 사령부나 한국 육군본부 또는 국방부 정훈국의 발행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국과 유엔의 역할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유엔본부 또는 미 8군 사령본부 발행 가능성이 보다 높다.

넷째, 발행시기와 관련하여 표제지면의 ‘January 1952’에 의거 1952년을 발행년으로 가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내용의 시간적 수록 범위를 고려하여 보아도 1952년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책임표시사항은 미상이나 군기관인 유엔본부 또는 미 8군 사령부나 한국 유엔본부 또는 정훈국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만화가의 경우 국방부 정훈국 미술대에서 계몽포스터와 빠라

작업에 참여한 김성환과 당시 유엔군의 포로로 홍보선전 작업에 참여한 김용환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많은 만화가들이 당시 심리전에 동원되어 홍보자료 제작에 참여하였으므로 제3자의 만화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여섯째, 1950년대 만화의 종류는 홍보용전단과 만화잡지 등이다. 이러한 홍보용전단(빠라)이나 군기관지인 만화잡지 등은 6.25 전쟁의 심리전에 주로 홍보용 매체로 활용되었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홍보용전단과 엽서 외에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단행본으로 발행된 홍보자료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표제지면에 보이는 'UNIT NO.23' 기록을 통해 홍보자료 중 23번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한 1950년에 홍보용전단과 만화잡지가 주로 활용되었지만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류의 또 다른 홍보용 단행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덟째, 당시의 용어와 표현, 외래어 표기 등은 시대적 상황과 국어학적 연구의 가치가 있다. 특히 공산주의자, 공산군, 공산당, 공산괴뢰군 등의 용어의 다양함과 변화는 시대적 상황의 급변의 반영임으로 보인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서 심리전의 하나로서 등장한 특수한 만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장의 「우리 대한민국」은 유일본이나 인쇄본으로 이후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또 다른 6.25 전쟁 당시의 홍보전단 단행본이 발견되어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단행본의 책자로서 낱장의 홍보전단이나 만화잡지 및 신문 등으로 연구되어온 6.25 전쟁 당시의 심리전 연구에 참고의 가치가 있고, 그 외에 시대사적 연구 및 국어학적 연구, 만화 발전사적 연구 등에 참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두산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82402&cid=40942&categoryId=37713>>. '만화가 김성환: 한국 현대만화의 출발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7790&cid=59116&categoryId=59116>>. '만화와 추억'. <<https://cafe.naver.com/oldcomic/1758>>. 박인하. 「한국현대만화사: 1945-2009」. 서울: 두보CMC, 2010.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선사시대부터 1945년까지」. 서울: 프레스빌, 1996. 「우리 대한민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장본). 이두호. 「한국만화가이드북: 만화잡지편」. 부천: 부천만화정보센터, 2004. 이용수, 백정숙. “『만화학생』을 통해 1950년대 아동만화잡지를 돌아보다.” 『근대서지』 20(2019. 12). 350-364.

- 이용수, 황익구. “일제침략기 군대만화엽서를 통해 본 군대의 홍보와 병영생활: 전쟁프로파간다의 전파와 확산.” 『日本文化研究』 67(2018. 7). 115-140.
- 이윤구. “6.25전쟁과 심리전: 들리지 않던 총성, 종이폭탄! 뼈라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1(2010. 12). 130-148.
- 이재웅, 윤기현. “한국전쟁기 뼈라의 만화적 특성 분석: 미군과 한국군의 뼈라를 중심으로.” 『만화에 니메이션 연구』 55(2019. 6). 217-242.
- “‘코주부’ 만든 김해 출신 현대만화 거장 김용환 계승 작업 활발.” 2018.10.18.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035>>.
-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
- 한국만화100주년 시사만화위원회. 『한국시사만화 100년: 풍자와 해학, 희망의 시사만화』. 서울: 알다, 2009.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를 말하다』.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ctive Work to Succeed to Kim, Yonghwan from Gimhae, Who is a Leading Modern Comic Book Writer and the Author of Kojubu”. 2018.10.18.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035>>.
- ‘Cartoon and Memory’. <<https://cafe.naver.com/oldcomic/1758>>.
- ‘Cartoonist, Kim Sung-hwan: Starting Point of Korea’s Modern Comic Books.’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7790&cid=59116&categoryId=59116>>.
- Doosan Encyclopedia*.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82402&cid=40942&categoryId=37713>>.
- Korea Current Affair Comic Books Committee of 100th Anniversary. 2009. *100 Years of Korea’s Comic Books of Current Affairs: Current Affair Based Comic Books of Satire, Humor, and Hope*. Seoul: Alda.
-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2014. *Talking about Korea’s Comic Books*. Bucheon: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 Korea- My Home*. (KOMACON Collection).
- Korea National Culture Grand Encyclopedipia*. <<https://terms.naver.com>>.
- Lee, Duho. 2004. *Guide to Korea’s Comic Books: Comic Books Edition*. Bucheon: Buchone

Comic Book Information Centre.

- Lee, Jaewoong, & Yoon, Kihun. 2019. "Analysis of Comics Characteristic for Propaganda Bill in the Korean War: Centered on U.S. Forces and South Korean Forces Propaganda Bill."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55: 217-242.
- Lee, Yongsoo, & Baek, Jeongsuk. 2019. "Looking Back on Comic Books for Infants in 1950s through Review on 'Comic Books Student'." *Geundae Seoji*, 20: 350-364.
- Lee, Yongsoo, & Hwang, Yikkoo. 2018. "Publicity and Barracks Life of the Army Seen through Military Comic Postcards: Propagation and Proliferation of War Propaganda." *Japanese Culture Research*, 67(7): 115-140.
- Lee, Yoon-koo. 2010. "The Psychological Warfare during the Korean War: Focusing on Propaganda Leaflets." *Journal of Korean Modern & Contemporary Art History*, 21: 130-148.
- Park, Ihha. 2010. *Korea's Modern History of Comic Books: 1945-2009*. Seoul: Dubo CMC.
- Son, Sangik. 1996. *Korea's History of Comic Books: From pre-historic times to 1945*. Seoul: Press Bill.
- Standard Grand Korean Language Dictionary*. <<https://ko.dict.naver.com>>.

[부록] 『우리 대한민국』의 구성과 내용

| 분류 | 장 | 컷 | 주요 내용 | 주요 사건 |
|--------------|-------|--------|---|---|
| 해방소식 | 1 | 1 | - 북한 청산골 소작인 김춘식과 동리 학교 교장 이재학 소개 | - 8.15 해방 - 일제치하의 어려움 |
| | | 2 | - 소련 공산당이 해방시켜줌에 감격 | |
| 소련 군대소식 | 1 | 3 | - 소련군대의 라디오 방송 | - 농민의 자기 토지 소유 선전 |
| | | 4-7 | - 김춘식과 이교장의 소련 공산당 관련 대화와 동리 주민들의 기쁨의 대화 | - 김춘식: 해방군으로 인식 - 이교장: 해방자 아님 고지 |
| | 2 | 8-9 | - 세간살이를 산으로 옮김 | - 김춘식 소련 군인 신임 |
| 식량, 가축 징발 | 2 | 10 | - 소련 병정의 입성 | |
| | | 11 | - 모든 식량과 가축 징발과 물자 공급 권장 | |
| | | 12-4 | - 공산주의자의 공허한 약속 지각 | - 스탈린 등 사진 배경 |
| 군대훈련명령 | 3 | 15-7 | - 모든 청년들에게 북조선인민군대보고서 제출, 군사훈련 명령 | - 신체검사 장면 |
| 상황기술 | 3 | 18-9 | - 매일 새로운 명령, 강제 탄압, 통행증 필요 | - 불평자의 체포 후 행방불명, 마을처녀들의 행방요연 |
| 권한모의 등장 | 4 | 20-1 | - 권한모의 자기소개와 추수 착취와 엄중 처벌 경고 | |
| | | 22-6 | - 권한모의 김춘식 딸에 대한 음모 | |
| | 5 | 27-30 | - 이교장의 공산당 복종 권고와 김춘식의 여식 걱정 | - 공산주의자에 대한 평가 |
| 정두남의 등장 | 5-6 | 31-3 | - 부모와 월남한 정두남의 귀향과 대화 | |
| 남한 소식 | 5-6 | 38 | - 정두남의 38선 사이의 다른 남북한 비교 | |
| | | 39-41 | - 정두남의 미국과 한국 소식 | - 한국의 민주주의하의 자유 |
| | | 42 | - 정: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소작인과 자작농 비교 | |
| | 7 | 43-6 | - 정두남의 미국에 한국에 한일과 공산주의자의 악행 설명 | - 김춘식의 고민과 두려움 |
| | | 47-50 | - 정두남의 밤 귀가 | |
| 동인민위원회 | 8 | 51 | - 권한모의 김춘식 동인민위원회 추천 | |
| | | 52-6 | - 이교장의 복종 권고 | |
| 토지분배권 | 8 | 57 | - 권한모의 방문과 이교장의 판단 | - 양식과 자식 약탈 및 반대 눈치 만 보여도 다 사라짐 |
| | | 58 | - 이교장의 인민위원회의 토지 분배권 상기 | |
| | 9 | 59-62 | - 김춘식의 겨울농사 걱정과 권한모의 위원회 지령 전달 | |
| 토지분배명서 | 10-11 | 63-70 | - 토지 분배지령서 명부작성과 제출 | |
| 토지분배 | 12 | 71-80 | - 권한모와 명부 관련 김춘식 협박 | - 토지분배 명부의 조작 |
| | 13 | 81-5 | - 순옥의 피신과 동인민위원회 연설, 토지분배와 공산주의와 소련의 찬양 | - 토지분배와 공산주의, 소련의 찬양 |
| 주민의 고통 | 14 | 86-90 | - 특혜 공산당원 외 북한주민의 고통 기술 | - 북한주민의 고통과 공산주의 의 원망, 감시미 공출과 교화소 정신무장행 공포 |
| 김춘식의 고통 | 14 | 91-3 | - 권한모의 순옥 행방 추궁과 김춘식 동인민위원회 위원장직 태만했다고 파면 | - 동인민위원회 위원장직 파면 |
| | 15 | 94-5 | - 김춘식의 토지 박탈과 딸 걱정 | - 토지 박탈 |
| 상황 변화 | 15 | 96-100 | - 이교장의 유엔방송 청취와 투표권 소식 전달 및 서울 방송 청취와 남한과 공산당의 실정 전달 | |
| 평화청원 호소문 | 15 | 101 | - 스톡크호름 평화 청원 호서문 서명 | - 스톡크호름 평화협정의 전초 |
| | 16 | 102 | - 김춘식과 이교장의 관련 대화 | |

만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고찰

| 분류 | 장 | 컷 | 주요 내용 | 주요 사건 |
|---------------|----|---------|--|---------------------------------|
| 북조선공격 통보 | 16 | 103 | - 붉은군대의 비상사태 대비 야간통행금지령 통보 | - 야간 통행금지령 |
| | | 104 | - 남조선반동분자와 미제국주의자의 북조선 공격 통보 | |
| 피살 | 16 | 105-7 | - 이교장의 체포와 피살 | - 평양방송 외 청취 불허 |
| 공산당 도망 | 16 | 108 | - 공산당의 청년 징집 명령 | |
| | 17 | 109-11 | - 공산당의 도망 | - 공산당은 적 |
| 미군의 등장 | 17 | 112-4 | - 권한모의 도망과 체포 | |
| | 18 | 115-8 | - 미군의 등장과 권한모의 종말 | |
| 연합군 | 19 | 119-20 | - 정두남의 연합군 통역 | - 연합군에서 북한공산정권을 침략자로 선언 |
| 가족생사 | 19 | 121-2 | - 정두남과 김순옥의 만남 | |
| | 20 | 123 | - 김춘식과 인민군대에 끌려간 자식의 상봉 | |
| 6.25 전쟁 발발 | 20 | 124 | - 평양방송은 미군 침략자, 공산당 승리 방송 | - 평양 방송과 서울 방송의 차이 |
| | | 125-6 | - 정두남의 미군은 치안목적인 것과 6.25의 남침 전달 | |
| 연합군의 목적 | 21 | 127-8 | - 정두남의 국제연합국 한국전선 참가와 원조 목적 전달 | |
| | | 129 | - 정두남 자유로운 면장 선거 전달 | |
| 면장 | 22 | 130-3 | - 정두남의 국제 연합후 자주정부 설립 계획 전달과 김춘식의 면장 선발 | - 태극기 |
| 혼례준비 | 23 | 134-5 | - 정두남과 김순옥의 혼례 준비 | |
| 유엔군 | 23 | 136-8 | - 김성현의 귀가와 김성현의 포로 소식 및 연합군 소식 | - 유엔군의 돌봄 |
| 혼례 | 23 | 139-114 | - 김순옥과 정두남의 혼례 | |
| 피난 | 24 | 142-5 | - 피난과 유엔군 원조 - 자유 갈망 | - 중국 공산당과 유엔군 - 유엔군 원조와 연합군기 |

